

투데이 칼럼

새만금국제공항, 지역 넘어서 국가차원의 SOC

과거 미국은 도시와 도시를 직접 연결하는 항공운행으로 극심한 적자상태에 있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중소도시에 공항을 대폭 확충하고 대도시 공항을 허브공항으로 이용객의 효율적인 집중과 분산이 이루어지도록 허브앤스피크(Hub and Spoke) 시스템을 도입하였다.

지금은 지방 국제공항이 인적 및 물적 교류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영국 버밍햄국제공항, 독일 슈투트가르트국제공항, 네덜란드 로테르담공항 등 세계적으로 많은 지방 국제공항들이 지역발전을 견인하고 있다.

최근 시간과 사회발전 속도의 중요성으로 공항 보유 유무는 중요한 경쟁력 지표가 된다. 항공 자유화 확대와 저비용항공사 공급으로 여객수요도 증가하고 있어 각 나라들이 관광과 산업의 발전을 위해 지방공항을 활성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선진국 사례처럼 국내여행뿐만 아니라 국제여행은 도시발전과 주민 편의를 위해 몇시간 소요되는 허브 공항 접근보다는 지방의 중소공항을 통해 이루어진다. 사회변화의 속도전에서 항공교통은 지역의 경쟁력 향상과 균형발전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시설인 것이다.



장 태 연

전북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지금 전북의 새만금에서는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새만금 개발공사가 출범하고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있으며, 다양한 용도의 부지조성을 통해 민간자본과 산업을 기다리고 있다.

당연히 민간자본과 투자자 입장에서 공간적 시간적 거리를 단축하기 위해 편리한 고속교통수단과 국제공항이 있는 지역을 선호하고 선택 할 것이다.

교통공학 측면에서 교통수요는 파생수요(derived demand)이다.

즉, 교통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수단이다. 목적인 수요창출을 위해 수단으로서의 공항이, 교통의 오지로서 공간적 분리를 극복할 필요성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

막대한 돈을 투입하는 새만금의 활용성과 경제성은 국가적 차원에서 중요하다.

현재 국가들은 국제물류 중심지의 위치를 먼저 차지하기 위해 많은 노력중이다.

동북아 물류중심지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물동량을 한 지점에서 빠르게 이동시켜야 한다.

새만금은 신항만, 인입철도와 함께 국제공항이 건설된다면 미래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트리아포트(tri-port) 복합물류체계의 완성을 이루는 장점을 지닌다.

최근 저비용항공사들이 화물운송을 시작할 수 있어, 빠른 시간에 새만금에 국제공항이 건설된다면 가까운 일본, 중국, 동남아 국가 등의 일부 항공노선에서 화물운송거점으로서의 가능성도 높다.

새만금 개발은 서해바다의 대규모 매립을 통해 국가가 주도하는 사업이다.

이런 측면에서 새만금국제공항의 경우 기존 지방공항과는 위치와 운영 특성에서 차별성이 있다.

방문객 등 수요에서도 직접적 비교를 할 수 없는 개발 잠재력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다. 새만금 배후도시에 레저 스포츠 및 여가 관련한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어 공항의 역할에 따라서는 관광객 유치에 통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도 만들 수 있다.

토지와 지장을 보상비가 필요 없고, 내부도로와 새만금~전주 고속도로가 추진중에 있어 추가적인 접근 교통망을 위한 비용부담이 적은 신속히 건설 가능한 경제적 공학이다.

계획된 사업들은 시기적인 차이는 있으나, 궁극적으로 개발 가능성이 높다.

국제공항은 이 사업들의 시간을 단축시키는 매개체로서 충분한 역할이 존재한다.

새만금에서는 2023년 해외에서 4만 명이상 참가하는 대형국제행사인 세계캠버리 대회가 열린다. 대회를 유치하는데 국제공항 개발이 중요한 영향을 주었다고 한다. 전북지역 조선소와 GM 군산공장이 문을 닫는 등 침체 속에서 새만금 국제공항이 지역사회의 자신감이 되었으면 한다.

사설

새해 지역 발전에 더욱 매진해야

새해 지역 발전에 더욱 매진해야겠다. 전북도는 7조원 예산 시대를 맞아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도지사의 신년 인터뷰 내용이 그것을 말하고 있다. 그게 그럴만한 게 지난해보다 4643억원이 많은 7조328억 원으로 예산이 불어난 것이다. 그리고 새만금 SOC 예산이 사상 최초로 1조원을 돌파해 1조1186 억 원 을 확보한 것도 전북도의 자신감을 뒷받침하고 있지 않다. 지난 수년간 예산 7조원 시대가 열리기를 열망한 만큼 전북도는 지역 발전에 더욱 매진해야만 한다.

전북도는 도민의 여망을 받들어 지역 발전에 매진해야 한다. 지역 발전 매진 발언은 지난날에도 여러 번 반복했던 바이지만 지금은 그 정서가 뜨겁다. 지역 발전 매진과 관련해 주문의 성격이 다르다는 이야기다. 과거와 같은 정도로 지역 발전 요구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전북도는 도민의 여망을 받들어야 한다. 도민은 새만금 국제공항이 들어서기를 바라고 있지만 그게 잘 안되고 있는 작금이다. 도민은 동부권의 발전도 바라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역시나 백년하청의 그것이다.간헐적으로 보여주는 관심사 가지고

는 동부권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전북도는 이제 실력발휘를 해야 한다. 전북도는 도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정부를 상대로 지력을 보여야 한다. 전북도는 지방에 화이부동의 정신을 말했었는데 그것은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자 매우 바람직한 것이다. 바로 그 화이부동의 정신으로 전북도는 지역 발전을 이끌어 가야 한다.지역 발전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켜야 한다. 전북도가 보여준 예산 7조원 돌파는 도민의 열망을 충족시키기에 충분하다.전북도는 도민의 열기에 고무되어야 한다.

다들 목도하는대로 우리 지역은 발전상이 시원치 않다. 다른 고장은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은 뒤쳐진 채로 있다. 전북도는 고장의 발전에 무한 책임을 져야한다.

전북도는 스스로 말한 그대로 공조하고 협력하는 시스템을 가동시켜야 한다.

그렇게 해서 전북도는 올해 배정된 예산을 온전히 지역 발전에 소비하는 왕성한 식욕을 보여야 한다.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그래야 한다.전북도는 새해 지역 발전에 더욱 매진해야겠다.

저출산 문제 성과를 내야겠다

올해 전북도에게 특별히 주문할 것이 있다. 저출산과 관련해 성과를 내야겠다는 것이 그것이다. 전북도는 지난해 연초에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겠다고 했지만 여태 진전이 없다. 그러므로 전북도는 저출산 문제에 방관해 오고 있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셈이다. 그동안 그때마다 고민하고 있다고 말은 했지만 그게 다 변명을 위한 보고였지 싶다. 저출산 문제가 지역의 오랜 숙제였음에도 그동안 눈여겨 볼만한 성과가 없었다는 것은 말 안 된다.

전북도는 올해 저출산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결해야 한다. 관계 전문가들과 민관협의체를 만들고 핵심과제를 선정해 그 이후에 행정력과 재정을 집중하겠다고 했었는데 그게 지금까지 감감 무소식이라서 하는 말이다. 정말이지 이대로는 지역의 앞날이 어둡다. 저출산의 고착화 때문에 데드크로스 현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오늘날이다. 사실이지 데드크로스 현상은 이미 오래 전부터 있었다. 사망자보다 출생자가 많아야 맞는데 우리 전북의 경우

는 그게 아니다. 전북도가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 해결 의지가 부족하다는 불만은 그 근거가 없지 않다. 전북도는 다른 광역시도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수 배워야겠다. 출산 문제가 이쪽보다 덜 심각한 다른 광역 시도들도 5개년 출산 정책안이며 출산 장려 추진단을 조직하는 등 출산 캠페인이 활발하다는 소식이었다. 그런데 전북도는 기존 대책 그대로라서 비교가 되었다. 전북도는 저출산 문제를 심상하게 접근해선 안 된다.

전북도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2백만 도민을 운운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184만 명대를 유지하고 있는 게 팩트이다. 출산 인구가 늘지 않고 있는 중에 고령화 고착 현상이 굳어지고 있는 게 우리 전북의 현실이다. 예전에도 지적했거니와 거주 인구의 현실을 제대로 보아야 한다.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은 계속 늘고 있는데 신생아 울음소리는 어찌다 드물게 듣고 있다. 전북도는 올해 저출산 대책과 관련해 기필코 성과를 내야만 한다.

독자제언

겨울철에도 주의해야 하는 졸음운전

보통 봄철이 겨울철에 비해 졸음운전 등에 따른 교통사고가 많다고 하지만 겨울철에도 무시할 수 없는 것이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이다. 고속도로 교통사고 5건 중 1건은 졸음운전이 원인이며 전체적으로도 졸음운전사고 차사율은 교통사고 차사율의 두배 이상 높고 소수 2명 정도를 마시고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는 것과 비슷해 운전자들의 졸음운전 예방을 위한 각별한 주의와 노력이 필요하다.

날씨가 추워지며 운전 중 계속해서 히터를 틀어놓게 되는데 장시간 이어질 경우 차량 내 공기순환이 되지 않아 산소가 부족해져 졸음운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바람이 차더러도 한 번씩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고 차량 내부를 20~23도 정도의 적정온도로 유지

시키고, 30분에 2~3분씩은 외기 순환 모드로 바꿔주면서 운전하는 것이 좋다.

정차했을 때나 운전 중에 운전대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깨나 목을 가볍게 풀어주는 것도 졸음운전 예방에 좋은 방법이다.

또한 화물차 운행 등 장시간 운전을 해야 하는 경우라면 휴게소 또는 졸음쉼터에서 잠시나마 휴식을 취해 운전 중 쌓인 피로를 풀어주어야 한다.

운전자 본인의 안전뿐만 아니라 다른 운전자들의 안전까지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주의해야한다.

눈길, 빙판길 등 운전이 위협되는 요소들이 많은 겨울철이기에 졸음운전에도 더욱 주의를 기울여 안전운전 하길 바란다.

신서윤 교정서 교통관리계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캐나다 새해맞이, 눈보라 속 얼음물 뛰어드는 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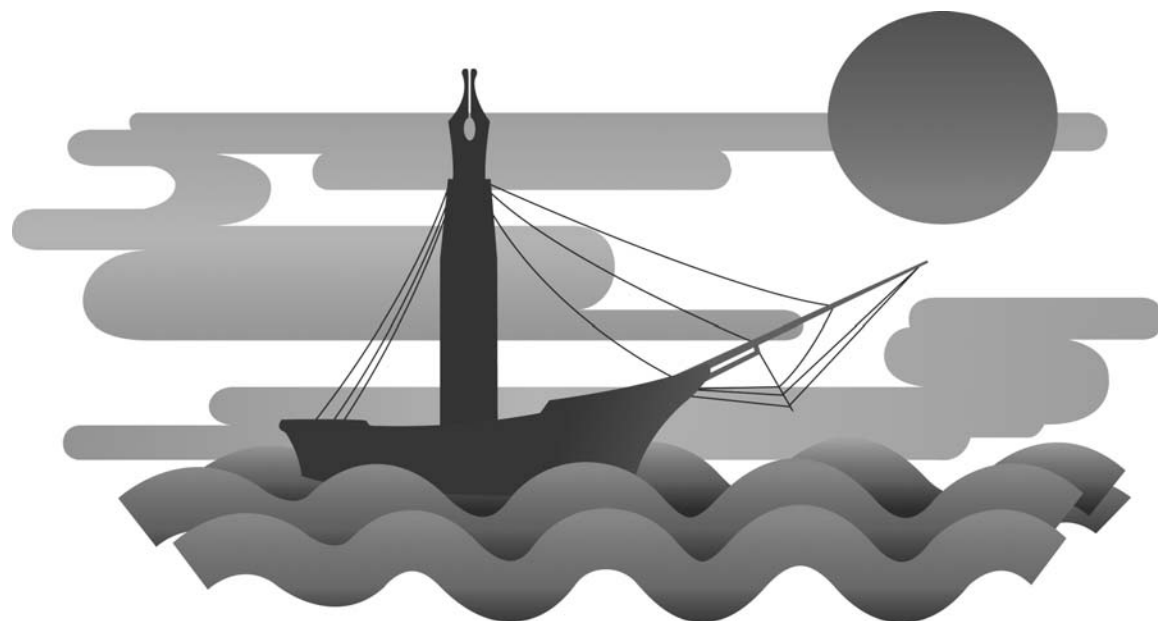
1일(현지시간) 캐나다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의 살렛타운에서 연례 새해맞이 '플러버 플러저'가 열려 한 여성이 눈보라 속 얼음물로 뛰어들고 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